

LG상사, 팜유 4만톤 공장 가동

10월19일 인도네시아 공장 완공 ... 4만톤 증설에 농장 확대도

LG상사가 세계 최대의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장을 세워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

LG상사는 10월19일 인도네시아 서부 칼리만탄 스카다우(Sekadau) 소재 팜유 4만톤 공장을 완공했다고 발표했다.



LG상사는 2009년 12월 스카다우에서 여의도 면적의 약 20배인 160km²의 팜 농장을 확보한 뒤 팜유 생산을 위한 부지 정비, 식재 작업 등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수확한 팜열매는 현지 팜유 생산기업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LG상사는 앞으로 공장을 증설해 연간 8만톤까지 생산량을 늘리고 인근 팜농장도 추가확보할 계획이다.

팜유는 팜나무 열매를 순수 압착방식을 통해 추출하는 식물성 유지로 중국과 인디아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팜유는 바이오디젤의 원료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LG상사는 팜농장을 앞으로 바이오에너지 사업의 교두보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팜유는 바이오디젤을 비롯한 식용유, 화장품 등 다양한 상품들의 주원료로 각광받으며 세계 각국 대기업들의 팜농장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0/22>